

흑부리영감

옛날에 볼에 커다란 흑이 달린 영감님이 살았어요.
동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흑을 볼 때 마다 놀렸지요..
할아버지는 항상 흑을 없앨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답니다.
그러던 어느날 흑부리 영감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밤이 깊어 어느 빈집에서 하룻밤을 묵게되었어요.

빈집에 드러누워 있으니 슬쩍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흑부리 영감은 신나게 노래를 불렀지요.
신나는 할아버지의 노랫소리를 듣고 온 도깨비들,
도깨비는 할아버지의 노래가 좋아서 계속 불러달라고 했어요.
흑부리 영감님이 노래를 부르자
도깨비들은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도깨비들은 할아버지의 좋은 노랫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지요.

흑부리할아버지는 처음엔 '입'에서 나온다고 했다가,
나중엔 '목구멍' 이라고 솔직한 대답을 했지만,
도깨비들은 믿지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흑에서 나오는 거라고 애길하니,
도깨비들은 옳거니,하며 할아버지의 흑을 더욱 떼어갔답니다.
그런데 이웃동네에 사는 흑이 달린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있었지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흑부리영감의 소문을 듣고 달려와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았답니다.
자기도 흑을 떼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산 속 빈집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방 안에 드러누워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정말 도깨비들이 나타났는데 이번엔 도깨비들이 화가 많이 났네요.
할아버지의 노랫소리가 흑에서 나오는게 아니란걸 알게된거죠.
당연한거겠죠??ㅋㅋㅋ

그래서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흑부리할아버지의 흑까지 붙여주었어요.
욕심쟁이할아버지는 양쪽에 흑을 달고 부리나케 도망가면서 말했답니다.

아이고, 흑 떼려다 흑 하나를 더 붙였네.

너무나 욕심이 과하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네요.